

계슈탈트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황 인 숙* 오 윤 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계슈탈트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을 통해 기독교 상담적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의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유기체적 삶의 형태 형성과 해소의 반복 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알아차림 및 접촉과 접촉경계혼란을 유발하는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의 심리적 기제를 살필 수 있었다. 둘째,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성경에 나타난 사례를 통해 증상과 치료방법을 고찰 할 수 있었다. 셋째,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요인인 사단의 방해에 대해 고찰 할 수 있었다. 넷째, 계슈탈트 상담을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비판과 더불어 수용에 대해서 피력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접촉경계혼란을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다룸으로써 하나님과의 접촉이 자신의 정신건강 유지와 전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나-경계를 초월하여 타인 및 사회의 관계성에 밀접한 관련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계슈탈트, 접촉경계혼란, 심리적 기제, 사단의 방해, 기독교 상담

* 맑은샘상담센터 소장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교수

I. 여는 글

기독교 상담의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보면 수용과 거부 그리고 통합을 통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상담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53년 Fritz Kunkel 이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Vande Kemp, 1996), 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면서 신앙과 심리·정신적 문제를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강연정, 2019; 김용태, 2013; 김경준, 2020; 오윤선, 2008; 전요섭, 2006; 전형준, 2014; Bouma-Prediger, 1990; Carter & Narramore, 1979; Collins, 1981; Crabb, 1981; Fansworth, 1982; Kirwan, 1984; Moon, 1997).

최근 여러 심리치료 이론들 가운데서 형태치료라고 불리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의 통합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본다(이정숙, 2008; 장정미, 2018; Oaklander, 1988). 형태치료와 기독교 상담에 통합적 접근을 실시한 Gau(2000)는 기독교 상담자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게슈탈트 치료를 적용했을 때 내담자의 관계 및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Ken Wilber(2005)는 게슈탈트 치료 접근을 통해서 영성과 과학을 통합함으로써 인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평을 확장시켰다.

국내 연구자 중 안진봉(2002)은 게슈탈트치료를 목회적 활용에 적용하였고, 김정규(2008)는 게슈탈트치료와 종교적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영이(2014)는 게슈탈트 상담이론에 내재된 영성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박은정(2018)은 목회자를 위한 게슈탈트 심리학 이론과 사례 연구를 하였으며, 최근에 박기영(2020, 2021)은 게슈탈트의 알아차림과 접촉에 관해 기독교 상담적 적용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게슈탈트 치료의 기독교 통합적 접근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 요인인 알아차림과 접촉에 관한 통합적 연구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음 알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요인을 방해하는 접촉경계혼란에 대해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게슈탈트 치료의 핵심 요인인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접촉경계혼란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을 통한 비판점과 수용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독교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슈탈트 상담의 주요 개념인 알아차림, 접촉, 접촉경계혼란 그리고 접촉경계혼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기제인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접촉경계혼란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경에 나타난 접촉경계혼란의 사례를 통해 증상과 치료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요인인 사단의 방해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게슈탈트 상담을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비판점과 수용점에 대해 고찰한다.

II. 펴는 글

1. 알아차림, 접촉, 접촉경계혼란의 이해

1) 알아차림과 접촉

게슈탈트 상담(Gestalt therapy)은 독일 출생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 Fritz Salomon Perls, 1893~1970)에 의해 창안된 심리치료이다. ‘Gestalt’라는 단어는 인간의 인식행위를 연구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써 형태, 형상, 모습 등의 의미를 지닌 독일어이다(오윤선, 2022). Perls는 인간의 유기체적 삶을 형태 형성과 해소의 반복순환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 순환 과정에서 알아차림(awareness)은 형태 형성과 관계하며 접촉(contact)은 형태의 해소에 관계한다고 하였다.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 유기체의 전경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생각, 감정, 욕구, 행위를 지각하고 게슈탈트로 형성하여 전경으로 떠올리는 행위를 말한다(김정규, 2006). 즉, 인간이 현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적 현상과 더불어 자신의 욕구나 정서 그리고 생각과 같은 내적 현상들을 방어기제를 통해 피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슈탈트치료에서는 이럴 때 게슈탈트를 형성했다고 한다.

접촉은 개체가 알아차림을 통해 형성한 게슈탈트를 행동을 통해 완결하는 행위이다(김정규, 2006). 만약 개체가 알아차림을 통해 자기의 유기체적 욕구를 알아차렸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접촉하지 않는다면 유기체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 때 유기체의 접촉이란 개체가 새로운 환경에 일방적으로 순응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

미한다(Polster, 1974).

건강한 유기체는 자신의 계슈탈트를 형성하여 전경으로 떠올리고 이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여 배경으로 사라지게 하는 순환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적응과 성장을 한다. Perls는 이러한 계슈탈트 형성과 해소의 반복순환을 장애에 대한 알아차림과 운동반응이라고 명명하고 4단계 접촉단계로 설명한다(Perls, 1951). 이후 Zinker(1977)는 계슈탈트 접촉 주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6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알아차림과 접촉은 나-타인-환경-세계가 하나로 통합하여 조화롭고 평화로운 일치상태를 이루게 한다. 통합 상태의 개체는 사회체계와 독립되어 있는 동시에 모순과 갈등없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고 지속적인 창조와 성장과정에 있을 수 있다(Polster, 2006).

2) 접촉경계혼란

접촉경계(contact boundary)란 개체와 환경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Perls는 접촉이 일어나는 곳 즉 유기체와 환경이 만나는 장소를 접촉경계라고 보고 모든 심리적인 사건들이 이 접촉경계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Perls, 1969). 건강한 개체는 접촉경계에서 환경과 교류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를 열어 받아들이고, 환경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단음으로써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과의 접촉과 교류가 차단되고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혼란이 발생한다. 계슈탈트 치료에서는 이처럼 계슈탈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해소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접촉경계혼란이라고 한다(Zinker, 1977). 유기체는 접촉경계혼란으로 인해 에너지를 환경과의 효과적인 접촉에 사용하지 못하고 흩어버림으로써 접촉을 차단한다. 이렇게 환경과 교류할 에너지가 차단된 유기체는 성장이 멈추면서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짐으로써 결국에 심리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계슈탈트 치료에서는 모든 정신병리 현상이 항상 접촉경계혼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접촉경계혼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기제로는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이 있다(Perls, 1969; Polster & Polster, 1974). 이러한 기제들은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방어기제로 내용적으로 제각기 구분하기도 하지만 기능적, 과정적으로는 서로 상호관련되어 복합혼란의 형태로 나타난다(김지원,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사(introjection)는 개체가 환경의 요구를 선별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

키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나 사회로부터 요구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한 후 수용 혹은 거부의 태도를 갖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Perls, 1969).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인격을 발전시킬 여지를 없게 한다. 한편 내사는 긍정적 내사와 부정적 내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내사 수준이 높은 것은 반드시 병리적이지 않으며, 한 사회의 문화에 적응적일 수 있다(김정규, 1995; 김지원, 2015; 박재우, 이수진, 2019).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인이 주님의 말씀을 내사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와 친밀한 접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내사는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접촉경계혼란을 초래하고 미해결 과제를 증가시키게 된다. Perls는 신경증의 원인을 부모 태도의 나쁜 측면을 동일시한 것으로 쉽게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사된 상태로 남아 개체의 통합성을 방해하여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았다(김정규, 2006).

둘째, 투사(projection)는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그리고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내사와 마찬가지로 투사 또한 창조적 투사와 병적인 투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투사는 개체의 능동적 대처 방안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병리적인 현실왜곡의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병적인 투사는 개체가 직면하기 힘든 자신의 내적인 욕구나 감정 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행위를 반복하게 한다(Zinker, 1977). 개체가 투사의 기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욕구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고통을 덜 받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억압된 욕구를 타인을 매개로 충족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Clarkson, 1990; Homney, 1991). 그러나 투사가 강해지면 알아차림과 접촉이 어렵게 되어 심리장애를 겪게 된다. 이는 박재우와 이수진의 연구에서 투사가 신경증(우울 및 불안) 및 정신병(편집증 및 정신증)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박재우, 이수진, 2019). 따라서 특별히 투사는 접촉경계혼란을 다루는 계슈탈트 상담 장면에서 가장 먼저 심도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융합(confluence)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각자 독립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감정과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합의하는 것에서 오는 접촉경계 혼란이다(Perls, 1951). 부모나 자녀, 형제간, 부부간, 친구간 등의 사이가 지나치게 융합되어 있는 경우 이들은 서로간의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마치 일심동체인 것처럼 착각하며 길들여진 관계에 익숙하다. 이러한 경우 한 개인의 개성과 주체성이 포기되고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는 내담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권석만, 2020).

넷째, 반전(retroflexion)은 개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자기에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규, 1995). 이러한 기제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자신을 두 부분으로 분열시켜 자기 자신과 행동을 주고받는 것에 있다(Perls, 1976). 즉, 개체의 에너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한쪽은 밖으로 다른 한쪽은 나가려는 에너지를 불드는데 사용되면서 타인이나 환경과 접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행동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접촉 경계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개체는 단지 신체의 긴장과 통증과 같은 신체질환 및 강박, 죄책감, 열등감, 우울증과 같은 심리장애를 겪게 된다.

다섯째, 자의식(egotism)은 개체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개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욕구가 크거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개체는 자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행동 및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의식함으로써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접촉을 방해하고 자기 내부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억제되어 표현하지 못한 충동은 배경과 전경의 중간층에 머물며 접촉경계혼란을 일으킨다(Perls, 1969). 자의식의 기제를 살필 때 주의할 점은 알아차림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의식의 경우 개체가 두 부분으로 분열되어 관찰자와 피관찰자로 나누어지지만 알아차림은 유기체의 현실이 하나의 통합적인 현상으로 체험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여섯째, 편향(deflection)은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불안을 막기 위하여 애당초 흥분 에너지 자체를 피해버리거나 둔화시키는 것이다. 편향의 대표적인 행동은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초점을 흐리는 것, 말하면서 상대를 바라보지 않거나 웃어버리는 것,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돌려 말하는 것 등이다(Polster & Polster, 1974). 이러한 기제가 습관화되어 성격으로 굳어지면 타인과 환경으로부터 소외되고 생활의 활력과 생동감이 감소되어 무기력하게 된다.

따라서 게슈탈트 치료는 이상과 같은 접촉경계혼란을 관찰하여 알아차리고, 개체의 흥분 에너지를 다시 환경과의 접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내담자와 개체 환경과의 교류를 안정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Perls, 1975).

2.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의 접촉경계혼란 고찰

성경에 접촉경계혼란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개념과 증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들과 접촉하셨던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치료방법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단의 방해로 인해 접촉경계혼란을 겪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성경적 의미

하나님께서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라고 불리는 초월적인 인격의 차원을 구성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영위하게 하셨다. 이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인격적 접촉을 유지했을 때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단절되어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졌고 관계가 단절되었다(Berkhof, 2001). 이로 인해 인간의 전인격적인 영역에 병리성이 나타났으며 인간관계 및 자연계의 질서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기독교인은 다시 하나님과 접촉하고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말씀묵상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고 관계 맺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깨어지고 조각난 계슈탈트를 가지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영적 미성숙과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박기영, 2021). 셋째, 하나님과의 접촉이 원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 부정적 사건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환경에 대해 부정적 형상을 구축하고, 접촉경계혼란을 일으키는 방어기제들을 사용하여 환상 혹은 공상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었다면 아직 영적 영향력이 환경과의 관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신경증 및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에서 접촉경계혼란은 총체적인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혹은 부적응적 방어기제가 습관화되어 자신의 내면, 타인, 자연, 사회, 역사, 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접촉함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접촉경계혼란의 사례

(1) 내사

성경에서 부정적 내사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한 부분은 먼저 구약의 열왕기서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열왕기서에 믿음의 조상 다윗만큼이나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평가받는 왕으로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이 소개된다(왕상 15:11; 왕하 18:3; 왕하 22:2). 이들은 믿음의 조상 다윗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주의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의 과정을 거치며 비판을 통해 자신의 가치로 동화시키며 긍정적 동일시, 긍정적 내사를 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 선지자 그리고 신앙공동체들과 모두 긍정적 접촉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셋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은 믿음의 조상 다윗이 아닌 육체의 조상 즉 가깝게는 악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다. 이 중 북이스라엘의 아합, 남유다의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내사한 대표적인 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가치와 가르침 그리고 행동을 내사함으로써(왕하 21:2)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하나님께 행한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내사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왕상 22: 51; 대하 22:4). 남유다의 므낫세의 아들 아몬 또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부정적 측면을 내사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왕하 21:21-22).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지닌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측면을 내사함으로 하나님, 선지자, 신앙 공동체와의 접촉경계혼란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잦은 부정적인 사건들에 노출되어 선지자들의 경책을 받고, 이따금씩 잠깐 후회와 회개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배신하는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부정적 자아상이 내재화 되었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본인 개체들은 물론이고 가문과 나라 전체가 접촉경계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2) 투사

성경에서 투사의 모습은 달란트 비유 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그 주인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마 25:14-3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종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지혜로운 사용으로 주인을 섬겨야 할 것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종들의 심판에 관하여 설명한 것임에 동의한다(Osborne, 2015; 김학철, 2009). 한편 달란트 비유는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투사로 인한 접

축경계혼란을 겪는 사람이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단위였으며, 1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 중 많은 양을 종들에게 맡기고 길을 떠났다. 이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으며,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두 달란트를 더 남겼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한 수고에 대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 주인의 뜻과 온전히 접촉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며 주인에게 '굳은 사람',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유를 대며 앞선 두 종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

주인은 종이 설명한 대로 정말 '굳은 사람'이었으며 정말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거두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주인은 다섯 달란트를 남겨온 종이나, 두 달란트를 남겨온 종이나 차별함 없이 같은 말로 칭찬하는 것에서 오히려 권위있고 공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학철, 2009). 또한 주인은 자신은 일하지도 않고 종들을 통해 거두려고만 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종의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남들이 20년을 꼬박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을 손에 쥐고 일하기 싫은 게으름으로 인해 땅에 돈을 숨긴 세 번째 종의 마음이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종의 고백대로 그 돈을 잃어 주인으로부터 화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면 앞선 두 종과 같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행해야 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부로 투사하여 일하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이는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던 주인의 대답에서도 증명된다. 결국 세 번째 종은 본인의 죄된 생각과 욕구를 주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주인을 잘못 지각하였고, 주인의 뜻과도 접촉하지 못하는 경계혼란을 겪는 인물로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으로써 환경과도 단절을 맞이하게 된다. 이처럼 투사는 유기체 자신의 욕구를 자각하고 접촉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접촉도 방해하여 타인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

(3) 융합

성경에서의 융합은 모자 융합으로 리브가와 야곱, 부부간 융합으로 아합과 이세벨, 형제자매간 융합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왕상21:7-16절의 이야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융합관계를 확인시켜 준다. 마음이 상하여 식음을 전폐

하고 드러누워 있는 아합의 행동과 이 모습을 바라본 이세벨의 반응과 공감 그리고 격려의 대화에서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김형국, 2011). 이세벨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일사천리로 해결하여 아합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고, 아합은 이세벨의 지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한다. 이러한 모습은 병리적인 투사적 동일시와 부정적 융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예배의 우선순위 혹은 제자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거나(장재찬, 2009),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가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김선정, 2001; 김순영, 2003)을 다룰 때 자주 언급된다. 그리고 상담학적 관점에서는 많은 경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외향성과 내향성의 성격 차이로 접근하곤 한다. 그러나 Paul Stevens(2014)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양극화시켜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 없이 오빠 나사로와 함께 사는 자매로 특별한 연합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Bowen, 2005). 이러한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 볼 때 눅 10:38-42의 사건은 기독교 상담적 해석이 가능하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을 채비로 분주하였다. 그러나 늘 언니 마르다에게 연합되어 있던 마리아가 어느 때와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야기를 듣는 다른 행동을 취하였다. 서로간의 불일치를 용납하지 못한 마르다는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와 짜증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일을 거들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여 동생 마리아가 일심동체처럼 융합되어 움직여줄 것을 바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분리되어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상담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융합으로 경계혼란을 겪고 있는 마르다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시고 각각 개체들의 욕구와 감정을 다룬 경우라 할 수 있다.

(4) 반전

성경에서 반전의 모습은 구약의 아히도벨과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꾼으로써 그의 베푸는 모략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삼하 16:23). 그는 다윗의 모사들 중 한 사람이었으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이 되려고 하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을 맺는다. 압살롬이 당장 도망가는 다윗을 뒤쫓자는 아히도벨의 의견 대신 다윗이 보낸 첩자 후세의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내려가 목메어 죽은 것이다(삼하 16:23).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빠르게 다윗을 쫓아갔다면 도망하는 신세의 다윗은 금방 잡히고 말았을 것이다(김호일, 1994).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아히도벨은 더 강력하게 압살롬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나아가 후세의 계획이 실패하는 결과를 토대로 압살롬과 후세에게 좌절감, 우울감, 분노감 그리고 적개심을 표출할 수 있었으나 그는 조용히 내려가 목메어 죽는 것을 선택한다. 또 그는 계획이 실패할 것을 대비하여 다른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지략과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과 접촉하는 대신 극단적인 단절을 선택한다. 자살은 반전이 심해지면 시도하게 되는 행동으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환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그 에너지와 행동을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환경에게 해야 할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반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Hamilton, 2014). 그는 도망가는 다윗이 걱정할 만큼 뛰어난 모략가였으나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는 접촉경계혼란 속에서 반전이라는 부적응적 심리 기제가 발현되어 결국 자살이라는 결말을 맞는다.

이러한 반전의 기제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삼십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다(마 26:15). 그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후 받은 돈을 던져두고 그 길로 달려가 목메어 자살을 한다(마 27:5). 양심의 가책 즉 죄책감은 반전과 관련된 현상으로 Polster와 Polster는 반전된 분노라고 본다(Polster & Polster, 1974).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써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분석하고 관찰했을 뿐 예수님과 온전한 접촉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 할 수 없었다. 이후 유다는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대한 죄책감 그리고 대제사장들에 대한 적개심을 송두리째 자기 자신에게로 반전시킴으로써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얻는다.

(5) 자의식

성경에서의 자의식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눅 19:1-10). 당시 세리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며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았다. 그 직책에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수용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부정직한 자, 동족을 배신한 로마의 앞잡이,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공동체에서 관계가 단절된 채 미해결과제를 계속 쌓아가는 대표적인 개체라고 할 수 있다(정경호, 2014). 나아가 그는 키가 150cm도 되지 않는 신체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Keener, 1998). 이

런 삭개오는 자의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환경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많은 세리들을 고용한 힘 있는 세리장으로써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Garland, 2018). 왜냐하면 자의식이 높은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해줄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주목받는 상황은 자신에게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삭개오는 조용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돌무화가 나무는 키가 크지 않고 크고 넓게 퍼진 가지들이 많아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이다(Garland, 2018). 자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계획하고 통제, 조정하여 표면적으로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현실에 잘 적응하는 '점잖은 신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삭개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정규, 2021).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 계슈탈트로 형성하여 전경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마음과 접촉하기 위해 에너지를 동원하여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실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기에 엉거주춤한 상태로 공개된 장소보다는 자신의 몸을 조금은 숨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은 삭개오의 자의식으로 인한 접촉경계혼란의 심리상태를 대변해준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타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대해서는 네 갑절이나 갚는 타인과의 새로운 접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은 신학적인 면에서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불의하게 얻은 이익을 구약의 법에 따라 더 배상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이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렸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Garland, 2018). 그러나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자의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예수그리스도라는 영적 환경과 접촉을 이루지 못했던 개체가 마침내 예수님과의 접촉을 이룬 이후에 환경과도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삭개오의 성공적인 알아차림과 접촉은 같은 자의식으로 인해 접촉경계혼란을 겪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교해볼 수 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3대 종파 중 하나로

사람들이 보는 곳에 따로 서서 기도하며 사람들로 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기 위한 종교 활동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에 있어 율법을 엄수하며 외적인 의에 치중한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들을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관찰자의 모습을 취하고,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의식이 많은 인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지나치게 계산되고 의식화된 행동은 개체 자신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제지함으로써 행동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인위적인 자기 내부에 갇히게 하는 접촉경계혼란을 일으킨다. 이에 이들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에서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극단적 분리주의자, 그리고 특권의식자라는 책망을 받는다. 이는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만 향해있는 에너지를 전환시키기 위해 영적 각성의 방법을 사용하신 예라고 할 수 있다(Tozer, 2008).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접촉한 대표적 인물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영적인 접촉을 고통스러워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는 완벽한 준비를 도모함으로써 영적 접촉에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만의 자의식에 갇혀 자기애적 욕구를 포기하지 바리새인의 모습은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서 온전한 자의식을 버리고 온전한 접촉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며 환경과 접촉하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6) 편향

성경에서의 편향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요 4:1-42).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대하여서는 신학적으로 구원, 영생, 예배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기독교 상담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강용원, 2013; 이관직, 2009; 노향규, 2020). 특별히 접촉경계장애와 관련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편향으로 인해 알아차림과 접촉에 혼란을 겪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는 것은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 버림으로써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편향 행동이다. 이는 유기체의 욕구나 감정이 즉 배경이 신체감각의 형태로 느껴지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아차림과 접촉주기 1-2단계의 장애에 해당하는 심각성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은 타인과의 접촉을 선명하게 회피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좌절을 예방하고 고통을 덜 느끼려는 대표적인 편향 행동에 해당한다.

또한 편향은 부담스러운 사람과의 대화관계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대상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 데려오라 하셨을 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에둘러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접촉을 피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의 남편 또한 남편이 아닌 여인의 결핍과 고통을 공감해주심으로써 여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직면시키자 재빨리 이야기의 주제를 선지자, 예배의 장소로 바꾸는 모습도 편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 ‘거룩한’ 유대인 앞에 선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불안, 죄책감, 심리적 갈등 그리고 긴장감이 편향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김순영, 2017).

한편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며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 관례의 벽을 허물고 물을 달라고 하시며 여인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셨다.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시며 도리어 “네 말이 옳도다”라고 수용하시고 지금의 남편 또한 남편이 아닌 여인의 결핍과 고통을 공감해주심으로써 여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직면시키시며 어루만져 주셨다. 노향규(2020)는 이를 두고 여인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훈계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인의 결핍을 돌보기 위한 의도였으며 여인의 실존을 드러내기 위한 반응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드러나자 자신에게 집중된 이야기의 중심을 선지자, 예배의 장소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어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편향하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접촉혼란기제를 활용하여 영적 본질과 접촉하게 인도하신다. 그 결과 마침내 현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진리에 접촉한 후에 자기 자신, 환경, 타인과 접촉하게 된다.

2) 사단의 방해와 접촉경계혼란

마지막으로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접촉경계혼란의 요인인 사단의 방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기영(2021)은 기독교 상담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믿음의 수준, 세상의 유혹, 사단의 방해를 제시하고 영적인 접촉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김호식(1996)은 하나님과의 접촉인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성품, 조직된 인간 세상 그리고 사단을 제시한다. 이 중 믿음의 수준은 신앙 성숙도나 영적 성숙도를 통해, 죄의 성품은 악덕이나 성격 검사를 통한 약점의 이해를 통해, 인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자연 및 사회 과학을 통해 조명되었고 그 적용에 대해 무수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들만이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사단의 방해를 객관적 연구로 규명하기 어려운 까닭에 그 적용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밤낮으로 종횡무진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해서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접촉을 방해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접촉경계혼란을 다룰 때 사단의 방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사단의 직접적 방해와 간접적 유혹과 시험에 대한 적절한 방어와 대응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마귀, 원수, 뱀.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알세불 등 23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4개의 사역을 한다(김호식, 1996).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도전하는 사역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서에서 악의 세력들이 막아서 다니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답변이 늦어진 일이 있다(단 10:10-13). 이는 기독교인 내담자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 접촉경계혼란을 겪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세상 나라들에 대한 사역이다. 사단은 세상 나라들을 상대로 유혹과 기만으로 속이고, 세상을 지배하며, 불법의 사람을 세계 통치자로 삼고, 나라들을 모으는 일 등을 행한다(원종호, 2011). 이는 기독교 상담에 있어 세상에 대해 환멸을 느껴 무기력해졌거나 냉소적인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 대한 사역이다. 사단은 복음의 진리 이해를 방해하고 어리석게 들리게 한다(고후 4:3-4; 고전 1:18).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일을 한다(행 13:8-10). 이는 J. E. Adams, C. M. Narramore, G. R. Collins가 정의한 기독교 상담 및 기독교상담자의 역할과 맥을 같이 하며 기독교 상담자가 비기독교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왜 구원상담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는지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역이다.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참소하고(욥 1:9-11), 거짓 말하게 하며(행 5:3), 교만하게 하고(창 11:4), 시기하게 하며(삼상 18:9), 분노하고 복수하게 하고(창 34:25-27), 게으르게 하며(마 25:26), 탐욕스럽게 하고(딤후 6:10), 정욕스럽게 하며(마 5:28), 두렵게 한다(눅 22:55-60).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독립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에 관하여 C. S. Lewis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2018)에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의 방법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되어 있다.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개체의 생각과 욕구 그리고 가치를 발견하는 상담에 있어서 온전한 접촉을 방해하는 사단의 측면을 고려하여 내담자가 총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3. 접촉경계혼란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많은 기독교상담학자들이 다양한 심리치료의 목표와 시행 방법론 그리고 내용적 차원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며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별히 게슈탈트 이론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접촉해야 하지만 파괴된 전인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기 자신 및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관계성을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접촉경계혼란을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비판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주의하고 배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게슈탈트 치료의 경우 우주와 인간의 기원 그리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궁극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의 불행이 본래적 상태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아차리고 다시 접촉함으로써 본래성을 찾고 성숙에 이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불교, 유교 등의 타종교에서도 주창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성불을, 유교에서는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상진, 1999). 이는 기독교 상담학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종교성향에 따라 기독교 신앙이 아닌 종교 통합적 관점으로 인도해도 치료의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동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한다.

둘째, 게슈탈트 이론은 기독교 상담의 인간관과 차이점이 있다. 많은 현대의 심리치료에 관한 기독교 상담학적 평가가 그러하듯 게슈탈트 이론은 복음주의의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이 아닌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Jones & Butman, 2009).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이런 인간에게 새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분의 구원의 섭리아래 만물이 협력하고 인간이 동역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책임지며 실존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수동적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수동적 존재이자 활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실존적이고 책임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게슈탈트적 개입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계슈탈트 치료의 행복론은 기독교상담의 행복론과 대치된다. 계슈탈트 치료에서 행복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라고 본다.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서의 행복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Perls, 1992). 따라서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 행복 지각의 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Gunaratana, 2002). 그러나 신명기 33:29 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원한 행복을 달성한 사람이다.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결과이며 다만 아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다(오윤선, 2019).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개체가 집착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행복추구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와 방법론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강연정, 2015).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계슈탈트 접촉경계혼란의 개념과 기제들은 비기독교인은 물론 기독교인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의하며 충분한 수용과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계슈탈트 이론은 개인, 자연, 환경,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의 상호 불가분성을 전제로 하는 유기체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기독교 상담의 세계관과 맥을 같이 한다.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계를 그의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계속하여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한다(Berkhof, 2001). 즉, 인간의 출생과 삶의 운명, 인간의 삶의 외적인 성공과 실패, 물리적인 세계, 동물계, 국가들의 일 그리고 우주 전체 등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Polster(2006)가 개체가 자신의 내면, 타인, 자연, 사회, 역사, 우주,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동시에 연결되어 소통하며 새로운 창조와 성장과정에 있다고 설명한 ‘연결성(connectedness)’의 개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접촉경계혼란을 겪고 있는 비기독교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궁극적으로 인간과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점을 마련해준다는 점이다. 개체가 겪는 고통의 80%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발생한다(Lewis, 2002). 이는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접촉과 관계가 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단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이 상호 위계적으로 관여되어 개체가 행복에 대한 계슈탈트가 완결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에게는 발견된 진리인 계슈탈트 그 저변에 숨어있는 종교 통합적 세계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내리모어는 어떤 상담보다도 가장 훌륭한 상담은 영혼을 구원하는 상담이라고 했다(전요섭, 박기영, 2008). 이런 점에서 접촉경계혼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구원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일차적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기독교인 내담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미해결 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매일의 말씀묵상기도를 통해 접촉하고 관계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 깨어지고 조각난 계슈탈트를 가지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 사단의 방해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계슈탈트를 형성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 따라온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의 약함, 허물, 어그러짐, 악함 등을 틈타고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고통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러 깨우는 메가폰으로 이 고통을 사용하시며 마침내 큰 유익을 만들어 내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뜻을 지니고 계신다(Lewis, 2018).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통은 유기체의 이차적 소명과도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다(오윤선, 황인숙, 2015). 따라서 이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유기체를 향한 하나님의 욕구와 하나님의 동기를 알아차리고 접촉함으로써 접촉경계혼란을 치료할 수 있다.

넷째, 하나님과의 접촉이 원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 부정적 사건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환경에 대해 왜곡된 형상을 구축하고 접촉경계혼란의 기제를 사용하여 환상 혹은 공상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었다면 영적 영향력이 환경과의 관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중간층에 머물며 신경증 및 정신증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럴 경우 타인과 환경을 자신의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 편향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섭리대로 인식하고 접촉하는 계슈탈트 기독교 상담 치료의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계슈탈트 치료의 핵심 요인인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접촉경계혼란을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을 통해 비판점과 수용점에 대해 논의하고, 기독교 상담 적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상담에서 접촉경계혼란은 총체적인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혹은 부적응적 방어기제가 습관화되어 자신의 내면, 타인, 자연, 사회, 역사, 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접촉함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성경 속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접촉경계혼란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접촉함에 있어서 발생한 혼란이 유기체 자신의 욕구자각은 물론 타인 및 환경과 접촉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극단적 단절인 자살에까지 이르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적 본질에 대한 진정한 알아차림과 접촉은 경계혼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고 각각 개체들의 욕구와 감정, 타인 그리고 환경과의 온전한 접촉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해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며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과 유기체의 접촉을 차단시킨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접촉경계혼란을 다룰 때 사단의 방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사단의 직접적 방해와 간접적 유혹과 시험에 대한 적절한 방어와 대응 그리고 적응을 다룸으로써 내담자가 총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한다.

넷째, 계슈탈트 치료 이론은 일정부분 기독교 상담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인간관과 행복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별히 계슈탈트 치료는 종교 통합주의적 사고와 인본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의 목표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슈탈트 치료는 접촉경계혼란을 겪는 비기독교인 내담자들에게 구원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일차적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결점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기독교인에게는 유기체를 향한 하나님의 욕구와 하나님의 동기를 알아차리고 접촉함으로써 접촉경계혼란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접촉경계혼란을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다룸으로써 비기독교인의

신앙 경험에 빛을 비추었으며, 나아가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접촉이 자신의 정신건강 유지와 전인적 변화는 물론 나-경계를 초월하여 타인 및 사회의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접촉경계혼란의 기제들과 하나님과의 접촉 및 영적 성숙과의 관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관계성 및 효과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계슈탈트 치료 이론의 비판점과 수용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슈탈트 기법을 활용한 기독교 상담과정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 논문 투고일: 2022년 01월 31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03월 01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03월 08일



【참고문헌】

-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http://dx.doi.org/10.17841/jocag.2019.27.2.7>
- 강연정 (2015). 긍정심리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행복이론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2), 9-37. <http://dx.doi.org/10.17841/jocag.2015.23.2.9>
- 강용원 (2013).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전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37-73.
- 권석만 (2020).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서울: 학지사.
- 김경준 (2020). 근거기반실천과 Hall과 Hall의 임상적 통합 근거와의 통합적 적용. **복음과 상담**, 28(2), 5-31. <http://dx.doi.org/10.17841/jocag.2020.28.2.5>
- 김순영 (2017). **어찌하여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경기: 꽃자리.
- 김용태 (2013). 종합적이고 통합적 성격의 기독교 상담학: 학문의 구조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1, 9-32. <http://dx.doi.org/10.17841/jocag.2013.21..9>
- 김정규 (2006). **계슈탈트 심리치료: 창조적 삶과 성장**. 서울: 학지사.
- 김정규 (2008). 계슈탈트 심리치료와 종교성. **한국심리학회지**, 27(2), 481-498.
<http://dx.doi.org/10.15842/kjcp.2008.27.2.008>
- 김지원 (2015). 계슈탈트 접촉경계진단검사의 타당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철 (2009). 하늘나라 비유로서 달란트비유(마 25:14-30) 다시읽기: 주인과 세번째 종의 상호평가 중 어느 것이 옳은가?. **신약논단** 16(1), 5-39.
- 김호식 (1995). **사탄, 그는 아직도 존재하다**. 서울: 요단출판사.
- 김호일 (1994). **성경인물강해**. 서울: 일호문화사
- 노향규 (2020).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치유언어-내면가족 체계적 대화분석. **목회와 상담**, 35, 46-72. <http://dx.doi.org/10.23905/kspcc.35..202011.002>
- 박기영 (2020). 계슈탈트치료의 기독교상담적 적용: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1, 369-397. <http://dx.doi.org/10.14387/jkspth.2020.71.369>
- 박기영 (2021). 계슈탈트치료의 기독교상담적 적용: 접촉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6, 307-337. <http://dx.doi.org/10.14387/jkspth.2021.76.307>
- 박은정 (2018). 목회자를 위한 계슈탈트 심리학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 61, 231-263. <http://dx.doi.org/10.14387/jkspth.2018.61.231>
- 박재우, 이수진 (2019). 내사와 투사,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 계슈탈트상담연구**, 9(1), 17-30.
- 송영목 (2013).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요 7:53-8:11). **신약연구**, 14(3), 517-536. <http://dx.doi.org/10.24229/kents.2013.14.3.004>
- 전요섭 (2006). 상담과 설교의 통합방안. **상담연구**, 7(4), 1255-1269.
- 전요섭, 박기영 (2008). **기독교상담학자**. 서울: 콤파출판사.
- 전형준 (2014). 기독교상담의 통합 모델에 관한 성경적 상담학적 조명. **복음과 상담**, 22(1), 256-289. <http://dx.doi.org/10.17841/jocag.2014.22.1.256>
- 안진봉 (2002). 계슈탈트(Gestalt) 집단치료의 목회적 활용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윤선 (2022). **청소년 심리 및 상담**. 파주: 양서원.
- 오윤선 (2008).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복음과 상담**, 11, 209-236. <http://dx.doi.org/10.17841/jocag.2008.11..209>
- 오윤선 (2007).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B&P.
- 오윤선, 황인숙 (2015). **크리스천을 위한 진로상담**. 서울: 예영B&P.
- 원종호 (2011). **신학적 마귀론**. 부산: 설송.
- 이관직 (2009).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영이 (2014). 계슈탈트 상담이론에서의 영성.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4(1), 27-48.
- 이윤진, 장현아 (2015). 불교의 깨달음과 계슈탈트 상담의 알아차림 비교.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5(2), 31-46.
- 이정숙 (2008).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치료적 매체의 역할: 계슈탈트치료 및 통합치료 전문가과정 참가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찰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9(3), 943-959. <http://dx.doi.org/10.15703/kjc.9.3.200809.943>
- 장미정 (2018). 계슈탈트 심리치료를 통해 본 인테리어 테라피 사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4), 35-47.
- 정경호 (2014). 죄인으로 불리던 세관장 삭개오의 회개와 밥상. **기독교사상**, 1월호(661호), 68-77.
- 최상진 (1999). **동양심리학**. 서울: 지식산업사
- Bouma-Prediger, S. (1990). The task of integration: A modest proposal.

-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 21-31.
- Carter, J. D., & Narramore, B. (1979).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 Collins, G. R. (1981).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TN: Abingdon.
- Crabb, L. J. (1981). Biblical authority and Christian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4), 305-311.
- Farnsworth, K. E. (1982). The conduct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0, 308-319.
- Frambach, L. (1999). Spirituelle Aspekte der Gestalttherapie. In R. Fuhr, M. Sreckovic, & M. Gremmler-Fuhr (Eds.), *Handbuch der Gestalttherapie* (pp. 613-634). German: Hogrefe Verlag.
- Garland, D. E. (2018).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정옥배 역. *Luke*). 서울: 도서출판사 디모데. (원전 2012 출판).
- Gau, J. V. (2000). The Gestalt of emptiness/receptivity: Christian spirituality and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54(4), 403-409.
- Gunaratana, H. (2002). *Mindfulness in plain english*. Boston: Wisdom Publication.
- Hamilton, J. D. (2014). **전인적 돌봄을 위한 게슈탈트 심리치료 기초 이론과 실제** (윤인, 김효진, 최우영, 신성광 역, *Gestalt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서울: 학지사. (원전 1997 출판).
- Harris, E. S. (2000). God, Buber and the practice of Gestalt therapy. *The Gestalt Journal*, 23(1), 39-62.
- Jones, S. & Butman, R. (2009). **현대 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이관직 역, *Modern psychotherapies*). 서울: 대서. (원전 1991 출판).
- Kerr, E. M.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남순현 역. *Family evaluation*). 서울: 학지사. (원전 1988 출판).
- Kirwan, W. T. (1984).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Lewis C. S. (2018). **고통의 문제**(이종태 역, *The problem of pain*). 서울: 흥성사.

(원전 1940 출판).

Lewis C. S. (2018).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김선형 역, *The Screwtape letters*). 서울: 홍성사. (원전 1942 출판).

Moon, G. W. (1997). Training tomorrow's investigators in today's busy intersection: Better look four ways before cross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284-293.

Naranjo, C. (1979). Zentrierung im Jetzt. *Integrative Therapie, 1*, 165-191.

Oaklander, V. (1988). *Windows to our children: A Gestalt approach to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estalt Journal Press.

Osborne, G. R. (2015). **강제로 푸는 마태복음**(김석근 역, *Matthew*). 서울: 디모테. (원전 2010 출판).

Perls, F., Hefferline, R., & Goodman, F. (1951).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in human personality*. London. UK: Souvenir Press.

Perls, F. S. (1969). *Gestalt therapy verbatim*. Moab, UT: Real People Press.

Perls, F. (1992). *In and out the garbage pail*. New York: The Gestalt Journal Press.

Polster, E., & Polster, M. (1974). *Gestalt therapy integrated*. New York: Vintage Books.

Polster, E. (2006). *Uncommon ground: Harmonizing psychotherapy and community to enhance everyday living*. Phoenix, AZ: Zeig, Tucker and Theisen.

Stevens, R. P. (2014). **일의 신학**(주성현 역, *Work Matters*). 서울: 도서출판 CUP. (원전 2012 출판).

Tozer, A. W. (2008).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이태복 역, *Rut, Rot, or Revival*).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93 출판).

Vande Kemp, H. (1996). Historical perspective: Religion and clinical psychology in America. In E. P. Shafranske (Ed.), *Religion and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ology* (pp. 71-1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Zinker, J. (1977). *Creative process in Gestalt therapy*. New York: Vintage Books.

[Abstract]

A Christian Counseling Study on Gestalt Contact Boundary Confusion

Hwang, In Sook* Oh, Yoon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to Christian counseling applications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considerations on Gestalt contact boundary confusion.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of introjection, projection, confluence, retroflexion, egotism and deflection that cause awareness, contact, and contact boundary confusion in the repetitive cycle of formation and resolution of human organic life. Second,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symptoms and treatment methods through the biblical meaning of contact boundary confusion and the cases shown in the Bible. Third, in the spiritual realm, it was possible to consider Satan's interference, a factor that hinders awareness and contact with God. Fourth, it was possible to examine Gestalt counseling from a Christian counseling perspective and to express criticism and acceptance.

The above research results prove that contact with God is closely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s and society, transcending the I-boundary, as well as maintaining one's mental health and holistic change, by treating contact boundary confusion in Christian counseling.

Key words: Gestalt, contact boundary confusion, psychological mechanism, Satan's interference, Christian counseling.

* Maleunsam Counseling Center / Director

** Korean Bible University, Department of Liberal Studies / Professor